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3-1집
한국이슬람학회, 2013, 111~144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1402년)의 제작 목적 및 정치-사회적 배경에 관한 연구

최 창 모*

◁ 목 차 ▷

- I. 서론
- II. 지도제작(자)의 동기와 목적
- III. 지도제작의 정치-사회적 배경
- IV. 결론

*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Abstract>

A Study on the intentions and the socio-political
process of map-making based on the *Honil kangni*
yŏktae kukto chido(1402)

Choi, Chang-Mo
Konkuk University

The *Honil kangni yŏktae kukto chido* or the Unified Map of Territories and Capitals of the States, which was produced in 1402 in the second year of King T'aejong's reign in the Chosŏn dynasty, was the earliest known map of the world from the East Asia cartographic tradition. Before the Portuguese Jesuit missionary Matteo Ricci's western style world map *Kunyu Wanguo Quantu* or Map of the Ten Thousand Countries of the Earth was introduced to Korea in the seventeenth century, the *Honil kangni yŏktae kukto chido* was the oldest surviving map in East Asia, which covered the largest areas in the world. According to this map, China is placed in the middle; Japan and South East Asia in the South; the Central Asia in the West; India, the African Continent, the Arabian peninsula, the Iberian peninsula, the European continent and the Mediterranean Sea in the Far West.

The *Honil kangni yŏktae kukto chido* was produced even before Spain and Portugal initiated maritime expansion or the so-called the 'Age of Great Discoveries' was emerged in the early fifteenth century. And also it was about ninety years earlier than the discovery of New Continent by Christopher Columbus in 1492. In the history of East Asia, the Chinese

junks of the Zheng He expedition in Ming dynasty sailed through the Indian Ocean and Persia, and even all the way to Arabian Peninsula, and Africa. The Zheng He's expedition left indelibly imprinted the idea of the West on the mind of Chinese in the Ming and Qing period. It was even before ancient remarkable technology of Ptolemy's cartology was introduced to European countries *via* Islam. From the perspective of a history of map-making and its development in the Chosŏn dynasty, the *Honil kangni yŏktae kukto chido* or the Unified Map of Territories and Capitals of the States has brought about significance and value of the development of cartology at the face of transition to "scientific map" though the world or all under heaven (Korean: *ch'ŏnha*; Chinese: *Tianxia*) was perceived only as a ideologized and abstracted idea with the Sinocentric bias, which was represented in the *ch'ŏnhado* or the Map of all under heaven. In fact, the *Honil kangni yŏktae kukto chido* was painted on silk fabric with colour inks in a form of artistic wall-hanging on the basis of inherited from the earlier period of edited and produced cartographical knowledge and information adding science, and technology coloured with creativity because the uniqueness of it draws attention from world scholarship.

In this paper, I aim to explore possibilities of a new interpretation in the *Honil kangni yŏktae kukto chido*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Kangnido) by focusing on discourses of map and map contents. For this I will provide a general historical background knowledge of maps, such as intentions and purposes of map-making, the historical-political process of map-making, geographical information reflected on map, and map-makers etc, in the context of how political power has shaped those elements of map-makings. A history of map can be interpreted as a

historical discourse or a form of representation. Cartography is theoretically related to literary criticism, history of art, the sociology of knowledge. Map is never value-free, rather value-laden. Map knowledge is a social product. Any history of cartography which demeans the politico-social significance of its expression and description in the map would be an 'ahistorical' history.

※ Key Words: *Honil kangni yŏktae kukto chido*, Chosŏn map, cartography, map-making, Islam

I. 서론

고지도는, 기본적으로는 과거가 이해하고 있던 실제 세계를 보여주는 ‘재현된 시각예술의 한 형태’(이미지)로서, 본질적으로는 특정한 사실과 이야기를 공간적/지리적 상황에서 보여주는 ‘재현된 담화의 한 형태(언어)로서, 역사이해의 ‘거울’이자 ‘텍스트’이다. 고지도에는 당시의 역사-지리적 지식-정보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및 예술성 등이 도상학적 기호와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투영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그 속에는 한 개인과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과 이념, 권력과 신앙 등의 ‘가치’가 담겨져 있다(Harley 2001; Cosgrove and Daniels 1988; Blackemore and Harley 1980). 특히 세계지도 - 한국 고지도의 여러 유형들, 즉 세계지도, 외국지도, 국가와 국토 경영을 위한 전도(全圖)와 도별(道別)지도, 지방행정 구역을 그린 군현(郡縣)지도, 군사 요충지나 군사 시설 등을 그린 관방(關防) 지도 등 중에서 - 는 지역 간 공간정보의 교류와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세계인식 혹은 세계이해의 공적소통 구조를 엿볼 수 있는 ‘해독이 필요한 시각언어’이다.

1402년(태종2년) 조선에서 제작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공간적으로 당시까지 알려진 대륙을 모두 포괄한 현존하는 동아시아 최초의 세계지도로서, 15세기말~16세기 초 포르투갈의 중국선교사 마테오리치(Matteo Ricci, 1552~1610년)의 서구식 세계지도인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가 17세기 조선에 들어오기 전까지 사실상 가장 넓은 세계의 지평을 그려 넣은 지도로서, 중앙에 중국을 가장 크게 배치하고, 동쪽에는 조선을, 남쪽에는 일본과 동남아시아를,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 ‘축국(竺國)’-인도, 아프리카대륙, 아라비아반도, 이베리아반도, 유럽대륙 및 지중해를 각각 포함하고 있다. 시간적으로 이 지도가 제작된 15세기 초는 서양사적으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의한 ‘발견의 시대’ - 이 지도는 1492년 신대륙 발견보다 무려 90년이나 앞서 만들어 졌다. - 가 아직 막을 열기 이전이었으며, 동양사적으로는 명나라 정화(鄭和, 1371~1433년)의 대선단(大船團)이 인도양을 거쳐 페르시아와 아라비아-아프리카로 대항해(1405~1433년)(Guangqi 1992: Hsu 1988) - 1405년에 시작된 정화의 항해는 명·청대 중국인들에게 ‘서양’이라는 말을 각인시킨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배우성 2006, 150). - 를 떠나기 직전이었으며, 지도학사적으로는 유럽에 아직 고대의 탁월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도학이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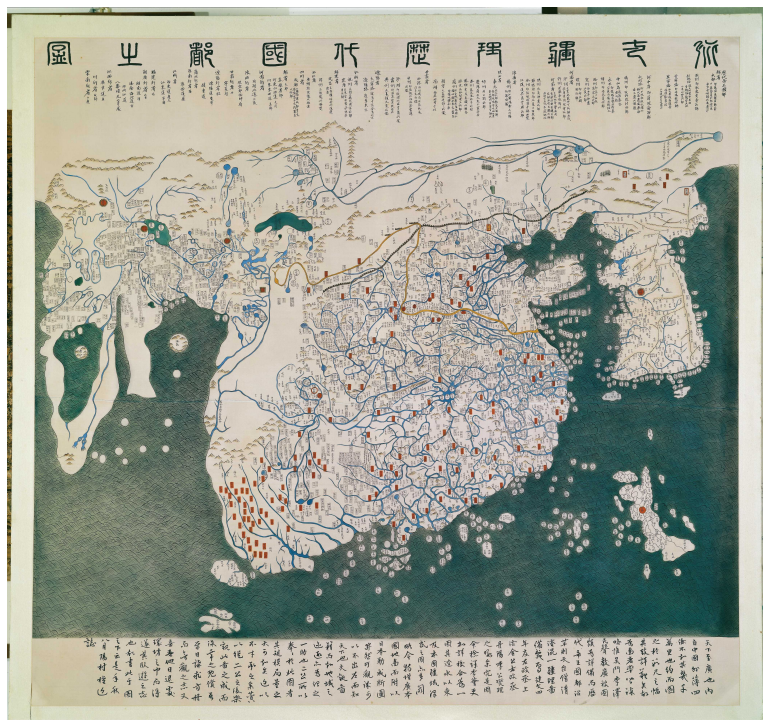
슬람을 통해 소개되기 이전이었다. 아울러 조선의 지도제작 및 발달사에서 볼 때에도, 천하(天下)를 ‘이상적’이고 ‘추상적’으로 이해하던 이전의 ‘그림지도’ — 예컨대 《천하도》(Hulbert 1904) — 와는 현저하게 구분되는 것으로써 ‘과학지도’로 이행하는 과정의 단면을 최초로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와 가치가 큰 지도가 아닐 수 없다(이찬 1977, 58).¹⁾ 이처럼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조선 전기(前期)의 지리학적 지식·정보를 종합하여(정보력), 뛰어난 과학·기술 위에 창의력을 덧입혀 편집·제작하고(창의성과 기술력), 비단에 잉크로 채색(彩色)하여 벽걸이 형태(예술성)로 제작한 세계학계에서도 주목받는 세계지도이다.²⁾

본 논문에서는, 먼저 지금까지 논의 되어 온 지도제작과정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 필자의 입장과 논거를 덧입혀, 지도제작(자)의 동기와 목적, 역사적 배경과 그 과정 속에서의 지리적 정보의 유래 등을 통해 본 정치권력의 맥락 — 지도는 결코 가치중립적 이미지가 아니며, 지도지식은 하나의 사회적 생산물이다. 따라서 표현/묘사의 정치-사회적 의미를 간과한 어떤 지도제작사 연구도 그 자체로 ‘역사와 관계없는’(ahistorical) 역사로 분류될 뿐이다(Harley 1989, 303). — 에 주목하여 탐구함으로써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열고자 한다.

1) 이찬은 “天下圖는 韓國人의 理想的인 世界觀을 表現한 抽象化된 地圖인 데 대하여, 混一疆理圖는 世界에 관한 地理的인 知識을 科學的으로 수집 編輯한 地圖이다.”(58쪽)라고 했다.

2) 이 지도는 1992년 미국에서 열린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 500주년기념 지도전시회에 출품되어 많은 찬사를 받았으며, 1994년에 간행된 《The History of Cartography》 시리즈의 아시아 부분(2권 2책)의 표지에 수록되기도 했다.

II. 지도제작(자)의 동기와 목적



2000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원본(150.0×160.0 cm, 족자부분 제외)이 일본 교토의 류코쿠(龍谷)대학 오미야도서관(大官圖書館)(청구번호 021.1-103-1)에서 발견되었다. 류코쿠대학의 오카다 요시히로 교수팀은 9년여의 초고정밀 디지털화 작업 끝에 2009년 11월 지도의 색채 및 지명·지형을 판독 가능하도록 선명하게 복원시켰다(多元視野で解明する至宝 2009).³⁾ 그동안 필사본 지도 4장만이

3) 대학 측에서는 ‘디지털 복원(Digital Conservation)’이 고지도의 보존성과 관람성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기술적인 문제를 들어 원본은 물론 디지털 지도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필자는 2010년 7월 26~27일 교토의 류코쿠대학 오미야(大宮)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지도복원에 참여한 교수와 대면하고, 사진본 및 디지털지도를

전해져 왔으며, 모두 일본에 소장되어 있다(Ledyard 1994, 265).⁴⁾ 한국에는 지도 학자 이찬 교수가 화공(畵工)으로 하여금 류코쿠 소장본을 모사하여 규장각에 기증한 사본 한 점이 있을 뿐이다(이찬 1977, 58).⁵⁾ 아직까지 조선에서 제작한 이 지도가 어떻게 일본으로 건너갔는가 하는 유래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Ledyard 1994, 248~249; 이찬 1991).⁶⁾

지도제작의 동기와 목적, 지도제작자의 배경, 제작방식과 체계, 그리고 제작과정

직접 본바 있다. 복원한 디지털지도는 컴퓨터 화면에서 원본과 대조하여 볼 수 있도록 제작했다.

- 4) 현재까지 알려진 사본은 일본 교토에 있는 류코쿠(龍谷)대학의 오미야도서관의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1470년경 제작)가 가장 대표적이다. 여기에는 1470년경의 지명이 반영되어 있다. 1928년 일본의 역사지리학자 오가와 다쿠지(Ogawa Takuji)에 의해 처음 세상에 알려진 이래, 최근 원본이 발견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은 류코쿠사본을 가지고 연구해 왔다. 그 외에 텐리(天理)대학부속 텐리도서관에 소장된 《대명국도(大明國圖)》(135.5×174.0 Cm, 제작자·제작연대 미상), 구마모토(熊本) 혼묘지(本妙寺)에 소장된 《대명국지도(大明國地圖)》, 그리고 1988년에 발견된 것으로 시마바라(島原市) 혼고지(本光寺)에 소장된 《混一疆理歷代國都地圖》 등이 있다. 이들 사본들은 일본, 유구국 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구조와 형태 등은 대부분 유사하여 지도계보학상 동일계열의 사본임을 알 수 있다.
- 5) 한국의 대표적인 지도학자이자 지리학자였던 고(故) 이찬 교수(전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는 1970년 일본 교토의 류코쿠대학 오미야도서관에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사본을 처음 보았으며, 지명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대형사진 4매와 전도 1매를 입수하고, 때를 같이 하여 텐리대학 소장본 《대명국도》의 사진도 얻는다. 그는 텐리대학 소장본에는 권근의 발문이 빠져있어 류코쿠사본이 원본에 더 가까운 것으로 여겼다. 이찬 교수는 초상화 전문가를 통해 지도를 모사(模寫)하고, 서예가를 통해 지명을 베껴 1983년 마침내 지도사본을 완성하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기증했다.
- 6) 기록이 없어 단정할 수는 없지만 류코쿠사본과 혼묘지사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조선침략(임진왜란, 1592~98년) 때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된다. 류코쿠지도는 소문에 의하면 히데요시가 교토에서 가장 중요한 혼간지 불교사원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40~50년대에 편집한 혼묘지의 고서와 사본목록에 이 지도의 이름을 상기시키는 제목의 지도가 들어 있다. 그러나 이찬에 따르면 류코쿠사본은 15~6세기 조선에서 제작된 것인데, 적어도 18세기 이전까지 한반도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1775년에 제작된 《여지전도》(숭실대학박물관 소장)가 17세기 중국예수회(Sino-Jesuit)가 만든 세계지도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아프리카나 영국과 스칸디나비아가 나오는 유럽은 류코쿠사본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일본의 디지털화 작업에 참여한 류코쿠대학의 한 지리학자 히토시 무라오카(Hitoshi Muraoka, 村岡 倫)는 2010년 7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한일합방(1910년) 이후 값을 지불하고 구입해 온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언급한 바 있으며, 그 근거 제시를 요구하자 얼버무린다. 이 발언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문화재반환청구권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필자의 원본 열람요청을 수차례 거절한 것과 입수경위에 관한 발언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등에 관해서는 지도 하단에 남긴 발문(跋文)을 통해 소상히 알 수 있다.⁷⁾ 48행(行)에 285자(字)의 한문(漢文)으로 쓴 발문의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다:

천하는 지극히 넓다. 안으로는 중국(內中國)으로부터 밖으로는 사해(外四海)에 이르기까지 몇 천만리인지 알 수 없다. 이것을 줄여서 수척의 폭으로 된 지도를 그리면 상세하게 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지도로 만들면 모두 소략하게 된다. 오직 오문(吳門) 이택민(李澤民)의 《성교광피도(聲敎廣被圖)》는 매우 상세하고, 역대 제왕의 연혁은 천태승(天台僧) 청준(淸濬)의 《혼일강리도》에 실려 있다. 건문(建文) 4년 여름에 좌정승 상락(上洛) 김공(김사형)과 우정승 단양 이공(이무)의 섭리(變理)의 여가에 이 지도를 참조하여 연구한 후, 검상 이회에게 명하여 자세히 교정하게 하여 합쳐서 일도(一圖)를 만들게 했다. 요수 동쪽(以東)과 본국의 강역은 이택민의 지도에도 많이 누락되어 있어서 지금 특히 우리나라 지도를 증광하고 일본을 첨부하여 새로운 지도를 작성했다. 정연하고 보기에 좋아 집을 나가지 않아도 천하를 알 수 있다. 지도(地圖)와 서적(書籍)을 보고 지역의 원근을 아는 것은 다스림(政治)에 도움이 된다. 두 정승(김사형과 이무)이 이 지도에 몰두하였던 것을 통해 그 분들의 규모와 국량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권근)는 재주가 없으나 참찬을 맡아 두 분의 뒤를 따랐는데, 이 지도의 완성을 기쁘게 바라보게 되니 심히 다행스럽다. 내가 평일에 방책을 강구해보고자 하였던 뜻을 맞보았고, 또한 후일 자택에 거주하며 와유(臥遊)하게 될 뜻을 이루게 됨을 기뻐한다. 이에 지도의 하단에 기록하게 된 것이다. 이해 가을 8월(是年秋八月) 양촌 권근이 씀(신병주 2007, 134~136; 오상학 2001, 58~59).

먼저, 지도제작(자)의 동기와 목적으로는, 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다스림(政治)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고대사회에서 지리(地理)는 천문(天

7) 이 발문은 1674년에 발간된 권근(權近)의 《양촌집(陽村集)》(22권 1a~2b, 2a)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제목이 “역대제왕혼일강리도(歷代帝王混一疆理圖)”로 표기되어 있다. 상당수 고지도의 경우 제작자나 제작년도가 미상인 경우가 많은 것과 비교할 때, 이 지도에는 발문(preface)이 있어 지도제작과 관련된 내용(목적, 과정, 제작자, 연대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 ‘텍스트와 지도가 결합된’ 형식의 지도는 지도제작사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없는 매우 드물고 특이한 경우에 해당한다.

文)과 더불어 국가를 통치·경영하는 중요한 ‘제왕(帝王)의 학문’이었다. 천문이 천체의 운동을 관찰하고 예측하여 정확한 역(歷)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면, 지리는 국토의 지형지세, 토지, 인구 및 물산을 파악하여 국정(國政)의 기초자료를 마련한다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이다(오상학 2011, 95).

그러나 지도제작 상의 여러 맥락들 – 지도제작 역사에서의 정치적 상황의 보편성, 권력구조가 지도의 내용을 취급하고 활용하는 방식, 지도지식을 활용해서 강화하려는 소통의 상징적 차원 등(Harley 2001, 55; 1989, 280) – 을 고려할 때, 그리고 “재현의 형식은 그것의 목적과 그것이 통용되는 사회의 요구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Blackmore and Harley 1980, 100)는 곰브리치(E.H. Gombrich)의 이론적 배경에서 바라볼 때, 이 세계지도가 단순히 국정(國政)의 기초자료 및 교역이나 통상, 외교나 여행 등의 ‘실용적’ 목적에서 제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태조 이성계 이후 아직 왕권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던 조선의 기틀을 다져서 사실상 조선의 창업군주로 불리는 조선의 3대 임금 태종(재위 1400년~1418년)이 세계지도제작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태조 이성계의 아들 중 가장 영민하고 대범하고 냉철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는 이방원은, 고려 왕조의 유지세력, 특히 정몽주를 선죽교에서 제거함으로써 중국의 원(元)·명(明) 교체기 속에서 고려왕조의 허약함을 본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신진세력의 정치·군사적 기반을 굳건하게 하여 새로운 조선왕조개국(1392년)의 문을 여는데 큰 공을 세웠으며, 명나라와의 외교적 분쟁(1395년)에 휩싸인 동안 조선의 왕실내부에서 일어난 권력다툼 과정에서 ‘제1차 왕자의 난’(1398년) – 이때 개국왕조의 정부 형태와 조세제도 및 법률제도를 마련하고, 불교를 배척하고 신유학(新儒學, Neo-Confucian)(성리학/주자학)을 나라의 통치이념(state orthodoxy)으로 삼고, 한양 천도(遷都)를 감행하는 등 조선개국의 틀을 마련한 삼봉(三峯) 정도전(鄭道傳)은 이방원에 의해 살해된다. – 을 일으키고 또 ‘제2차 왕자의 난’(1400년)을 진압하여 권력의 중심에 우뚝 섰다. 왕위에 오른 태종 이방원은 관제(官制) 개혁, 국방력 강화, 조세제도 정비, 척불승유 정책 강화, 호패법 시행, 신문고 설치, 천도(遷都) 등 개혁을 단행했다.⁸⁾ 태종의 이러한 대대적인 정치개혁, 유교중심의 사회·교육·문화개혁 과정에서 세계지도제작이 갖는 정치-사회적 의미는 무엇일까?

8) 참조. <http://people.aks.ac.kr>(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웹사이트 검색창)

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 지도의 제작목적이 지극히 넓은 천하(天下)의 지도자료를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하여 획득한 지리적 정보를 ‘참고’하여 ‘교정’하고 ‘합쳐’서 ‘정연하고 보기에 좋’도록 편찬함으로써 ‘다스림(政治)’ - 천문(天文)과 지리(地理), 즉 하늘과 땅으로부터 새 왕조의 우주적 정당성을 드러내는 것은 한국의 오래된 정치·문화적 전통이다(Ledyard 1994, 245). - 에 활용코자 함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바, 이는 조선왕조 개국 초기 내부적으로는 새롭게 확장한 지극히 넓은 천하세계의 ‘규모’를 보여줌으로써 왕조/왕의 원대한 이상을 일깨우고 이를 바탕으로 왕권을 굳고히 확립하여 원활한 통치에 활용코자 한 것이며(전종환 2005, 94, 97; 지도가 선전의 도구임을 밝힌 논문으로는 Quam 1943; Thomas 1949; Ager 1977), 외부적으로는 천하세계를 중화적(中華的) 세계인식의 틀에서 바라보게 함으로써 유교(儒敎)를 개국 이데올로기로 내건 조선이 중국과 긴밀한 우호적 외교관계(Woo-sung 2008; Robinson 2000)⁹⁾를 유지하고자 했던 지배계급의 인식과 의도를 견고하게 드러내는데 그와 같은 세계지도의 제작목적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해서 ‘확장된’ 외부세계(배우성 2006)¹⁰⁾를 ‘내부자의 시선’으로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 발문에서는 “안으로는 중국(內中國)으로부터 밖으로는 사해(外四海)에 이르기까지 몇 천만리인지 알 수 없다.”고 표현함으로써 분명히 ‘안’(내부세계)과 ‘밖’(외부세계)을 구분 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을 나가지 않아도 천하를 알 수 있’도록 했음(Woo-sung 2008, 74-75)을 밝히고 있다. - 대내외적으로 유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통한 ‘통치’의 정당성을 담보하여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이념적 화살/시선의 방향은 사회 안에서 권력을 가진 지배 그룹/개인으로부터 약자들에게로 한쪽방향으로만 날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지도는 현저하게 ‘권력의 언어’이다. ‘이미지와 권력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작

9) 조선 초기 대(對)중국(명나라)외교는 ‘사대’(事大)로, 대(對)일본외교는 ‘교린’(交隣)으로 요약된다. 오키나와(琉球)열도와 일본에 대한 조선의 해양외교정책은 중국 중심의 국제관계 모델보다 훨씬 복잡한 것이었다.

10) 배우성은 여기에서 ‘중화세계의 주변, 혹은 그 바깥쪽’으로서의 이역(異域)과 유럽으로서의 ‘서양(西洋)’을 구분하여 다루고 있으며, 중국의 이역에 대한 인식이 조선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역,’ ‘서양’ 혹은 ‘서역(西域)’이라는 용어 대신에 중화세계 서쪽의 모든 지역을 일컫는 지리적 용어로서 ‘외부세계’라 칭할 것이다. 이는 ‘내부세계’에 대한 대칭적 개념이다.

용하는 지도는 결코 ‘가치중립적 이미지’가 아니다. ‘권력과 지식의 관계’를 설명한 미셸 푸코(M. Foucault) 식으로 말해서 조선이 만든 세계지도 역시 예외 없이 ‘지식의 한 형태이자 권력의 한 형식’ 또는 ‘권력으로서의 지식’으로서의 지도였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지도는 권력집단의 일방적인 ‘보다 폭넓은 정치적 신호체계’이며, 권력을 재구성화 하는 일종의 목적론적 담화인 셈이다(Harley 1989).

지도제작자들로선 의정부 좌정승 김사형(金士衡, 1341~1407년), 우정승 이무(李茂, 1355?~1409년), 그리고 검상(檢詳) 이회(李薺, ?~?) 등 세 사람을 꼽을 수 있다. 정부의 현직 고위관리인 김사형과 이무가 지도제작을 총괄 기획하고, 실무는 이회가 한 것으로 나타난다. 김사형과 이무, 두 정승은 지도제작을 진행하는 동안 외교적인 일로 중국을 직접 방문하였는데, 김사형은, 권근이 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중국에서 제작한 지도들을 손에 넣은 채 1399년 여름에 여행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철종실록》 1.17a). 그러나 이무는 1407년에야 중국에서 귀국하는데, 이는 태종의 지지 세력과의 정치적 갈등, 유배 및 처형과 무관해 보이지 않으며, 또한 지도제작이 완료된 이후가 된다. 김사형과 이회는 지도제작과 관련한 행정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세계지도제작이 완성되기 수개월 전인 1402년 봄 태종에게 북쪽 경계지역에 대한 토지조사 진행과정을 보고한 바 있다(《태종실록》 4.10b-11a).

사실상 지도제작에 관한 행정적 책임은 본 지도의 발문에서 “이 지도의 완성을 기쁘게 바라보게 되니 심히 다행스럽다.”고 쓴 권근(權近, 1352~1409년)이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발문에서 “두 정승(김사형과 이무)이 이 지도에 몰두하였던 것을 통해 그 분들의 규모와 국량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 밝힌 점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지도제작과정에서 ‘권력자의 개입’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대목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위관리로서 그들(김사형과 이무)이 실제로 지도제작에 관여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주장(Ledyard 1994, 245)은 옳지 않다. 물론 출판·인쇄를 담당하는 자가 개량된 정확성을 위해서 학자들(후원자)의 요구를 항상 따르지는 않는다. 권력자의 영향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기술로 제작된 지도 역시 똑같이 오보(誤報, misinformation)를 유포시킬 수 있다(Blackemore and Harley 1980, 93). 권근은 고려 말에 급제해서 조선 초 태종 때까지 활동한 대표적인 개혁파 유학자 중 한 사람으로서 2차레나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온 기록이 있다.¹¹⁾ 그가 쓴 발문에 따르면 이 지도가 완성된 해는 건문(建

文) 제4년, 즉 태종 2년(1402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지도제작의 기술적-예술적 주역은 이회라 할 수 있는데, 생몰년(生沒年) 미상인 사간원(司諫院)에서 일했던 그가 1402년 5월 자신이 그린 《조선팔도도》를 태종에게 바친바 있다.¹²⁾ 그리고 불과 3개월 후 최초의 세계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완성되었다. 조선에 관한 부분은 두 지도 사이에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Robinson 2008).

이 처럼 지도제작에는 후원자의 후원을 비롯하여(후원) 수집·축적된 지리적 정보(지식), 기술적 노하우(과학), 문화-예술적 솜씨(예술)가 종합적으로 결합 - 지도 안에서 '예술'과 '과학'은 동일한 소통과정의 국면에서 상호관련을 갖는다(Blakemore and Harley 1980, 104). - 되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형태, 디자인, 그리고 색채를 덧입혀 지도는 완성된다. '시각 이미지' 또는 '이미지의 언어'(Mitchell 1980)¹³⁾로서 옛 지도가 주는 강렬한 인상은, 설령 여러 가지 사실성의 오류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는 폭넓은 인문적 상상력과 통찰력, 과학과 예술이 결합된 매혹적인 표현력과 구성력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그러나 지도제작과정에서 수집된 지리적 정보와 지식이란 '봉인된 소포처럼 발송되어 수취인에게 고스란히 배달되는 것'이라고 상상해서는 곤란하다. 담고자 하는 고유한 사상이 지도와 그 속의 이미지 배후에서 재구성되며, 각 단계에서 상호작용 과정의 변형 - 정치적, 종교적, 교훈적 목적을 위해 정보유실이나 정보은폐, 혹은 선전을 위한 잘못된 정보의 주입 등 - 이 흔히 일어난다(Blakemore and Harley 1980, 90-91). 여기서 '정보수집'과 '정보처리' 과정은 엄격히 구별된다.

이 지도가 1392년 조선왕조가 개국된 지 10년 만에 '두 명의 정부의 현직 고위 관리'이자 '최고의 유학자'가 직접 참여하여 제작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볼 때, 당시 세계지도제작이 국가적으로 현저하게 중요한 사업이었는지 알 수 있으며, 통치

11) 참조. <http://people.aks.ac.kr>(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웹사이트 검색창)

12) 참조. <http://people.aks.ac.kr>(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웹사이트 검색창). 《조선팔도도》는 조선시대 최고(最高)의 지도로 평가되고 있으나 현존하지는 않는다. 한반도의 윤곽이 비교적 정확한 세밀도이며, 독특한 산맥 표시방법 등이 돋보인다.

13) '이미지의 언어'란 이미지에 관한(*about*) 언어, 언어로서의(*as*) 이미지, 이미지에 의해 형성된(*informed by*) 시스템으로서의 언어 등으로 구별된다.

에 필요하고 유용한 수단으로서의 지도제작이 갖는 정치사적 의미와 배경을 엿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도학은 언제나 ‘황태자의 과학’이었다.” 이러한 지도의 정치권력의 맥락은, 곧 지도가 독립적인 예술가, 장인이나 기술자에 의해 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콘텐츠와 표현양식이 정치적 목적 — 국가의 관료체계나 개인 후원자나 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 을 위해 얼마든지 계획적으로 ‘왜곡’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선전’ 목적의 지도제작자는 개인적인 적절한 고안, 스케일의 조작, 과장, 표시이동, 서체 및 자극적인 색채사용 등을 이용하여 지정학적 관계를 일방적 관점에서 옹호해 왔다(Harley 2001, 56, 63; 1989, 281-282, 287; Needham 1959).¹⁴⁾

지도제작의 방식은 잘 체계화되어 있다. 북쪽이 위를 향하도록 제작된 이 지도의 상단에는 가로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 방향으로 크게 쓰여 있는 제목 — 圖之都國代歷理疆一混 — 이 말해주고 있듯이, 지도에는 ‘세계’(혼일)의 ‘영토’(강리)와 ‘대대로 내려온 나라의 수도’(역대국도)를 담고 있다. 지도의 제목 바로 아래에는 (중국의) 역대 제왕의 국도(國都)와 도성(都省) — 발문에 따르면 “역대 제왕의 연혁은 천태승(天台僧) 청준(淸濬)의 《혼일강리도》에 실려 있다.” — 이 세로로 쓰여 있다. 실크 위에 육지는 주황색으로, 바다와 잔물호수는 녹색으로, 하천과 담수호는 청색으로 각각 채색하여 구분했다. 또, 지명들에 있어서 국가명은 원 안 — 중국지도에서는 원 안에 역대왕조 이름을 써 넣곤 했다(Robinson 2007, 178). — 에 적색으로 채색했고, 수도는 원형으로 보통도시는 사각형으로 표시하여 각각 그 안에 지명을 써 넣음으로써 지도 내에 배치되는 공간의 위계질서를 시각적 형태로 구체화했다. 이러한 착색법(着色法)(Harley 1980, 53; 중세이슬람지도에서 사용된 색채에 관한 분광학적 연구로는 Chaplin, Clark, McKay, Pugh 2006)¹⁵⁾은 13세기 아라비아의

14) 역사적으로 이슬람시대에는 칼리파가, 오토만제국에서는 술탄이, 인디아에서는 모굴 황제들이 지도를 군사, 정치, 종교, 선전의 목적으로 제작·사용한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고대 중국에서도 세밀한 군현(郡縣)지도나 관방(關防)지도는 통치자의 정책을 따라서 관료적·정치적 도구로서, 제국의 운명의 공간적 표상으로서 활용되었다. 근대 유럽의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 포르투갈에서도 절대왕국들은 언제나 지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부적으로는 방어와 전쟁, 내부적으로는 중앙정부의 행정, 국가정체성의 정당성을 위한 선전도구로 지도를 활용해 왔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지도는, 총과 군함처럼, 제국주의의 무기였다.”

15) 아직까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물리적 양상에 관한 분광학적 분석(spectroscopic analysis)은 진행되나 없다. 그러나 대체로 지도제작에 사용한 잉크나

자말 알-딘(Jamāl al-Dīn)의 나무로 만든 지구의(地球儀)의 착색법과 일치하는데(高橋正 1963, 1966, 1973; Sang-woon 1974, 282), 자말 알-딘의 지구의의 약 70%는 녹색으로 된 바다요, 30%는 흰색으로 된 육지였다(Gang 2007, 192).

지도제작사에서 제작·완성된 지도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지도사용자가 누구였는가 하는 것은 지도제작 만큼이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일본에서 발견된 지도의 원본이 벽걸이 형태로 제작되어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지도는 창덕궁(昌德宮)의 선정전(宣政殿, 왕의 집무실)이나 인정전(仁政殿, 창덕궁의 정전으로 왕이 외국의 사신을 접견하고 신하들로부터 조하를 받는 등 공식적인 국가행사를 치르던 곳)같은 중요한 방의 벽면에 걸어 놓았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지도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파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Blakemore and Harley 1980, 102) 왕의 통치 이념과 국가경영의 포부를 이 한 장의 지도를 통해 대내외의 고위관리들이나 국민 및 외교관들에 두고두고 알리기에 이보다 좋은 장소는 없었을 것이다.

한편, 왕조실록이나 의궤 등 국가의 주요 기록물 편찬 및 보관에 관한 조선시대의 기록문화 전통에서 볼 때,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여러 장 제작·보관되었을 가능성 — 류코쿠사본이 1470년경에 제작되었으며, 추가적으로 혼묘지사본과 이를 바탕으로 제작한 텐리사본이 1568년경에 조선에서 제작된 것으로 볼 때(Namba 1973; Unno 1958), 원본제작 이후 최소한 여러 장의 사본지도제작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지도제작 전통이 끊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나, 기능적으로 문서보관소(archives)나 도서관에 수집·저장해 놓기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역사적 상황에서 사용하기 위해 기록물의 증거를 모아 정리한 것이라면, 지금으로서는 더더욱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인쇄지도제작술의 발달과 관련해서, 지방 관리들이나 대중들에게 배포, 선전을 목적으로 대량 제작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림물감은 화학합성물로 구성되며, 동시대 최고의 비법들을 사용한다. 지도학적 소통 구조에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색채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지도해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서체 역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공간내의 위계질서를 나타내는 지도언어의 문법은 곧 여러 역사적 맥락에서 메시지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Ⅲ. 지도제작의 정치-사회적 배경

가장 궁금한 것은 지도제작의 과정일 것이다. 지도제작과정은 곧 지도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발문에서 언급하듯이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중국에서 들여온 이택민(李澤民, 1273~1337년)의 《성고광피도》와 청준(1328~1392년)의 《혼일강리도(混一疆理圖)》— 불행하게도 두 지도는 현존하지 않는다. — 그리고 조선전도와 일본지도¹⁶⁾(Robinson 2007; 이찬 1977, 62; 오상학 2003) 등 최소한 기존의 네 장의 ‘이질적인 성격’의 지도들 — 직접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된 지도가 아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을 참고하여 편집했다. 발문의 내용으로 볼 때 지도의 전체적인 윤곽과 지명, 특히 ‘외부세계’의 그것은 이택민의 지도에 기초하였고, (중국의) 역대제왕의 국도(國都)와 주군(州郡)의 연혁은 명태조(明太祖) 홍무(洪武, 1368~1398년)의 측근이었던 청준의 ‘평범한 중국의 역사지도’를 주로 참조했다고 볼 수 있다(Ledyard 1994, 246).

지도제작에 주요한 근거가 되었던 《성고광피도》는 중국 원(元)나라의 이택민이 만든 지도로서 중세 동아시아에서 제작된 세계지도 가운데 유럽과 아프리카대륙까지 포괄하고 있는 지도로는 서양 선교사들에 의한 한역(漢譯)의 서구식 세계지도가 제작되기 이전의 것으로는 유일하다. 서양세계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식과 정보는 송대(宋代)에서 원대(元代)로 넘어 오면서 중앙아시아를 비롯하여 페르시아, 동유럽, 아라비아 및 북아프리카까지 영토를 확장하면서 동서간의 문화교류가 보다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획득한 것들이었다. 특히, 항해술의 발달과 더불어 해상무역

16) 《세종실록》 권 80(20년 2월)에 건문 3년(태종 1년, 1401년) 통신관으로 일본에 건너간 박돈지(朴敦之)가 상제한 일본지도를 입수했다는 암시가 나오는데, 이 때 입수하여 가져온 일본지도는 ‘행기도(行基圖)로 불리는 일본지도의 일종’으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제작에 활용된 것 같다. 그러나 지도에 표시된 일본은 위치나 크기 면에서 실제와 큰 차이가 난다. 조선과 중국을 중심으로 일본은 조선의 남쪽에 작게 그려져 있다. 조선 초기 일본에 대한 정보가 그리 많지 않았음을 고려하더라도, 이것은 15세기 초반 일본을 보잘 것 없는 작은 나라로 간주한 당시 조선 집권층의 세계관을 반영한다 하겠다. 보다 정확한 일본지도는 1443년 일본 통신사의 서장관으로 간 신숙주가 1471년(성종2년) 왕명으로 편찬한 《해동제국기》에 나온다. 15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된 일본과의 교류가 비로소 16세기 이후에 일본에 관한 비교적 정확한 지도를 만들 수 있는 배경이 된다. 한편, ‘우리나라 지도를 증광(增廣)했다’는 것은 《조선팔도도》를 기초로 하였음을 일컫는 말일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기서 더 상세하게 논의하지 않겠다.

을 통한 중세이슬람세계와의 접촉은 이미 탁월한 지도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이슬람계통의 세계지도(Edson & Savage-Smith 2006, 32)¹⁷⁾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인의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대폭 확대된 때문이라 여겨진다.

중국과 이슬람세계의 접촉은 원대(元代) 이전에도 육로(陸路) - 8세기 중엽부터 중국으로부터 중앙아시아를 가로지르는 육로(overland route)가 사실상 가로막혔다(Kuei-sheng 1970, 30). - 혹은 해로(海路) - 8세기부터 아랍선단이 동아프리카에서부터 남지나 해안까지 바다에서 위세를 떨쳤으며, 육로가 막힌 중국은 해로를 통해 거의 7세기 동안 아라비아와 교역했다(Kuei-sheng 1970, 21, 30; Hsu 1988; Flecker 2001). - 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당대(唐代, 618~907년)의 중국에 아랍 공식사절단이 39회나 파견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851년 아랍 상인 술레이만 알-타지르(Sulaiman al-Tajir)가 남중국의 광저우를 방문하여 자기공장을 방문하고 이슬람 사원을 지었으며, 아부 자이드(Abu Zayid) 같은 아랍인의 중국 여행기에 의하면 당말송초(唐末宋初)인 900년대에 중국 남동부에만도 아랍인을 포함하여 페르시아인, 유대인, 기독교인의 숫자가 12만을 상회했다고 전해진다(이희수 1991, 22; Goodrich 1943; Khan 1977; Israeli 1977, 1978; Leslie 1986; Gladney 2003).

그러나 본격적인 이슬람문화와의 접촉과 확산은 칭기즈칸에 의한 몽고제국이 건설된 13세기부터 이루어졌다. 몽고제국은 중국을 정점으로 동서아시아 대륙의 대부분을 정복하고 고려에서부터 멀리 동유럽에 걸친 사상 초유의 대제국을 형성했다.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원제국의 건설이야말로 크림리아 반도에서 한반도까지, 문명세계의 저쪽에서 이쪽을 하나로 연결하는 동서교역로가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 그리스-로마의 문명을 계승하여 중세문화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던 이슬람의 각종 문화와 과학·기술은 중국을 비롯하여 대륙의 동단에 위치한 한반도까지 전파될 수 있었다. 당시 색목인(色目人)이라 불렸던 무슬림들은 천문학, 지리학, 대수학, 물리학, 의학 등의 선진 이슬람 학문을 중국에 이식하는 데 선구적 역할을 했다(이희수 1991, 97-101; Huff 1993; Leslie 1986). 이슬람의 지도학은

17) 중세이슬람 사회는 종교적이며 질서정연한 우주와 세계의 지도를 그리는 한편, 넓은 사라센제국을 통치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성지순례, 교역 및 항해 등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필요에서 지리학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으로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Edson & Savage-Smith 2006, 50, 75, 105-106; Clark 2007, 56-61; 최창모 2009; Karamustafa 1991, 4; 재인용: 오상학 2001, I, 78).¹⁸⁾

그렇다면 원대 오문(소주) 출신의 이택민은 어디서 ‘외부세계’에 관한 지리적 정보를 입수하여 《성교광피도》를 제작할 수 있었는가? 중국 내의 사료에 근거할 때, 중국의 역사-지리도인 《광흥도(廣興圖)》를 제작한 명나라의 지도제작자 유홍선(羅洪先, 1504~1564년)은 “3년간 연구했고, 운 좋게도 주사본이 만든 지도를 발견하였다.”고 적고 있는데, 이는 《광흥도》가 14세기 초 원나라의 학자 주사본(朱思本, 1273~ca.1355년)이 만든 두 쌍의 반구체세계지도 – 그러나 불행하게도 주사본의 이 지도는 현재 볼 수 없다. – 를 일컫는 것으로 확인된다(Gang 2007; Hsu 1997; Smith 1996; 朱思本 1969). 일본의 아오야마 사다오는 유홍선이 이택민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를 주목하고 주사본이 바로 이택민과 관련된 인물일 개연성을 언급한바 있으며,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 나오는 중국지명들을 유홍선의 지도에 보존된 주사본의 지도의 지명들과 비교연구 하면서 상당한 일치를 밝힌 바 있고, 또 1328~9년에 와서 지명들이 크게 바뀐 징후를 확인한바 있다. 이는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자료가 1330년경에 만들어진 것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주사본의 지도의 지명들이 중국 바깥세계를 거의 제외 – 유홍선의 《광흥도》에 보존된 주사본의 발문에 “바다만이 출렁이는 남동지역, 모래황무지인 북서쪽, 부족들과 경계하고 있는 알 수 없는 모든 지역”은 배제한다고 적고 있다. – 하고 있기 때문에 이택민의 《광흥도》는 몽골시대(1260~1368년)에 전해진 이슬람지도를 본떠 만든 어떤 지도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았다(Ledyard 1994, 246; 青山定雄 1965).

일본학자들 가운데 13세기 쿠빌라이의 통치 때 중국에서 활동하던 이슬람세계 출신의 과학자이자 지리학자인 자말 알-딘의 활동에 주목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미야 노리코(宮紀子)는 자말 알-딘이 《대원일통지(大元一統志)》라는 대형 지리서를 찬수할 때 《천하지리총도(天下地理總圖)》라는 세계지도 – 물론 안

18) 중세이슬람 지도학은 고대 그리스-로마시대의 선진적인 프톨레마이오스(Claudios Ptolemaeos, c.90~c.168년) 지도학을 계승하고 있는데, 이는 9세기 초 칼리프의 후원에 의해 프톨레마이오스의 저서인 《알마게스트(Almagest)》와 《지리학 안내(Géographiló hyphégésis)》가 아랍어로 번역되면서 이슬람세계에서 지리학과 지도제작 분야에 활기를 띠게 되었다.

타갑게도 《대원통일지》는 그 내용의 극히 일부만이 전해지고 있고, 거기에 첨부된 지도 역시 하나도 전해지는 것이 없다. — 를 만들었고, 그것이 이택민의 《성교광피도》의 ‘조형(祖型)’이 아니었을까 추정할 바 있다. 아울러 노리꼬(官紀子)는 《천하지리총도》가 《성교광피도》처럼 동아시아 지역만을 거대하게 묘사하고 서방세계와 아프리카는 서쪽에 축소시킨 왜곡된 형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서 노리꼬는 “《천하지리총도》는 《성교광피도》보다 훨씬 정확한 세계지도였음이 틀림없다.”고 보았다(官紀子 2007; 2010, 154).

그러나 최근 한국의 김호동의 연구에 따르면, 자말 알-딘이 주도하여 만든 지리서 《대원일통지》(1291년 1차 완성, 1303 수정본 완성)는 처음부터 중국, 즉 한지(漢地)와 강남(江南)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 몽골제국 전체 혹은 적어도 ‘카안 울루스’ 전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으며, 여기에 첨부된 지도는 자말 알-딘이 계획했던 세계지도가 아니라 바로 방평(方平)이 중국과 그 주변 지역(만)을 강조해서 그린 《지리총도(地理總圖)》라는 것이었다고 보았다. 자말 알-딘의 관심이 세계지도의 제작에 있었던 만큼 지원23년(1286년)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몽골제국 전역을 포괄하는 세계지도의 제작을 쿠빌라이에게 간청하여 재가를 받았는데, 비록 이 세계지도가 완성되어 봉정(奉呈)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중국 각지에서 수집된 지도들과 그가 보유하고 있던 ‘회회도자(回回圖子),’ 즉 이슬람 지역에서 만들어진 지도들과 인도양을 무대로 활동하던 무슬림 선원들이 소지한 ‘랄나마(剌那麻, 페르시아어로 ‘길(路)’과 ‘서(書)’를 뜻한다.) (Minorsky 1957),’ 즉 해도(海圖)를 결합하여 제작하였을 것으로 보았으며, 이슬람세계를 잘 이해하고 있던 그가 그린 세계지도란 어느 정도 균형 잡힌 것이었을 것으로 보았다. 결국 한자로만 제작된 《대원일통지》에 첨부된 ‘총도’인 《천하지리총도》는 대덕(大德) 7년(1303년) ‘자말 알-딘의 개입 없이’ 방평과 유용(兪庸)이 함께 작업하여 제작한 것인데, 방평의 《지리총도》와 자말 알-딘이 만든 세계지도를 극히 형식적으로 결합하여 그렸기 때문에 세계를 왜곡된 형태 — 예컨대 중국을 매우 크고, 서방세계와 아프리카를 매우 작게 — 를 띄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호동은 “후일 《천하지리총도》가 민간에 유포되어 이택민의 《성교광피도》로 유전(流轉)된 것으로 보았다.” 결국 김호동은 중국과 한반도가 실제보다 훨씬 과장되게 표현한 “이택민의 《성교광피도》는 자말 알-딘의 세계지도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다(김호동 2010, 18).

김호동의 연구결과 - 비록 지명연구결과 ‘외부세계’의 “지명은 《원사(元史)》〈지리지(地理志)〉에 수록된 한자지명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긴 하지만(Ledyard 1994, 246-247) - 는 역사적 관점에서는 매우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으나, 지도계보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자말 알-딘의 세계지도와 《성교광피도》가 서로 달랐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둘 사이의 관계를 부정해 버리는 단순화의 오류, 즉 하나의 지도가 만들어 질 때 결코 똑 같이 복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을 간과했다(Ledyard 1994, 265).¹⁹⁾ 또한, 1330년 경 《성교광피도》가 수집한 서방에 관한 지리적 정보가 ‘직접적으로’ 자말 알-딘의 세계지도로부터 얻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를 토대로 제작한 《천하지리총도》를 근거로 하여 제작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면 ‘간접적으로’나마 이슬람의 지도학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자말 알-딘의 세계지도가 《성교광피도》와 어떻게 ‘완전히’ 서로 다른 계통의 지도인가를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지도제작과정에서는 정치-사회적 필요와 요구에 따라 - 지도는 결코 ‘순결한 실재’나 ‘가치중립적’이거나 ‘온전히 과학적’인 것이 결코 아니다(Harley 2001, 37; Rubin 1991; 1999). 그런 의미에서 지도의 언어는, 다른 언어들처럼, 살아있는 실체로서 사회 안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를 경험한다(Blakemore and Harley 1980, 93). - 배제와 첨가, 즉 증감(增減)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성교광피도》를 참조해서 만든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이슬람 지도학의 영향을 ‘간접적’으로나마 받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들은 많다.: 아랍어 혹은 페르시아화 된 아랍어 지명이 일부 보이고, 바다는 녹색으로, 하천은 청색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이슬람 지구의(地球儀)의 채색법과 동일하다.; 이슬람 지리학자들의 지도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특징인 세련된 선 처리와 지극히 추상화된 지형뿐만 아니라 지도상에 표기된 지명들이 이슬람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특히 이슬람문명이 꽃을 피우던 이베리아와 발칸 반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동시대의 역사적 맥락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²⁰⁾ 이 지역을 잘 알고 있

19) 지도계보학상 같은 계통의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복사본들 사이에서조차 똑같은 형태의, 똑같은 지명의 지도는 발견되지 않는다.

20) ‘외부세계’의 지명들은 14세기 초의 상황을 개략적으로 반영한다. 마그레브와 이베리

던 이슬람계통의 지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아프리카가 서쪽 방향으로 확장되어 있고, 나일 강 유역이 북방의 ‘구육만(久六灣),’ 즉 카스피 해로부터 유입되어 지중해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은 프톨레마이오스 지도 전통을 이어받은 중세이슬람 지도를 빼닮았다(高橋正 1963; Ledyard 1994, 246-247).²¹⁾ 결국 조선의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아마도 아라비아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던 원나라시대에 이슬람지도가 중국으로 전해졌고, 이를 토대로 2~3차 수정을 거쳐 제작된 중국의 세계지도 《성교광피도》 등을 참고하여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존의 학설(오상학 2001, 81; 전종한 2005, 96)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지도계보학상 같은 계통의 두 지도 사이에서 드러나는 차이점 또한 분명하다.: 중세이슬람세계지도에서는 남쪽을 지도의 상단으로 배치하였는데, 적어도 15세기 중반까지 아프리카 남단이 항상 동쪽에 위치하도록 묘사하였으나,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나 《대명혼일도(大明混一圖)》(이찬 1977, 60; 한영우 외 1999, 28)²²⁾에서는 이러한 점이 수정되어 있다.; 이슬람계통의 지도가 이슬람의 종교의식에서는 필수요소가 되는 시간관과 지리학 및 기하학을 바탕으로(Edson & Savage-Smith 2006, 31-32)²³⁾ ‘땅은 둥글다.’는 지

아반도는 (텐리사본에서) 제노아와 베니스가 빠진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다. <http://en.wikipedia.org/wiki/Kangnido>

21) 남쪽이 지도의 위로 향하고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지도에서 나일 강은 ‘月の山’으로부터 북류(北流)하면서 합쳐져 지중해로 들어간다. 이러한 형태는 알-이드리시(Al-Idrisi, 1099~1166년)의 세계지도와 일치하는 것이다. ‘月の山’을 의미하는 ‘제벨 알 카말’이라는 지명이 텐리사본에서는 ‘這不魯哈麻(zhébùlǔhāmā)’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이슬람 지도학의 영향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2) 1398년경 명나라에서 제작된 작자 미상의 채색 세계지도(비단, 386×456 Cm, 중국 베이징 제1역사당안관 소장)로서 1944년 이 지도를 열람했던 월터 푸크스(Walter Fuchs)에 의해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된다. 이 지도에는 조선, 일본은 물론 아프리카, 유럽, 인도까지 포괄하고 있는데, 일본과 인도를 제외하고는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와 거의 윤곽이 비슷하다. 《대명혼일도》에서 일본은 보다 서쪽에 치우쳐 있으나 매우 크게 그려져 있고, 인도는 좁고 긴 반도로 표시되어 있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대명혼일도》의 영향을 직접 받은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모두 이택민의 《성교광피도》를 참고한 것으로 같은 계통의 지도임에는 개연성이 충분하다.

23) 꾸란에서 지구는 “양탄자처럼 넓게 펴져 있고 산들에 의해 굳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으며”(13:3; 15:19), “일곱 개의 친구들에 대응하는 일곱 개의 지구들 중 하나다”(65:12)라는 언급이 있을 뿐이나, 하루 다섯 번 카바(Kabah)를 향해 기도하는 이슬

구 구체설에 기초하여 원형의 세계지도(오상학 2001, 78; Edson & Savage-Smith 2006, 112; Ross 2003; 2007; Tibbetts 1979)²⁴⁾로 제작된 것과는 달리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라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양문화권의 천지관(天地觀)인 천원지방(天圓地方)에 토대를 두고 있다. 즉, 하늘은 둥근데 비해 땅은 네모난 평평한 대지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 지도가 일부 이슬람 지도에서 보이는 경위선(經緯線)의 흔적은 전혀 볼 수 없으며, 지도의 형태도 원형이 아닌 사각형으로 그려진 것은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전통적인 직방세계 중심의 화이도(華夷圖)와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몽고는 한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적(夷狄)이었으나, 조선은 중화(中華)와 이적을 하나로 묶는 통합적인 개념인 ‘혼일(混一)’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더 이상 몽고족이 세운 원(元)나라를 중화와 구별하던 전통적인 화이관의 관점에서 세계를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한영우 1999, 20; 이찬 1977, 61).²⁵⁾ 물론 이 지도가 표현하고 있는 세계는 여전히 중국이 지도 전체의 약 2/3 가량(바다를 포함하면 1/3 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중화적 지리인식에서 크게 벗어나

람세계에서는 각기 다른 시간 계산과 천문학적 지식은 물론 지리학과 기하학 역시 필수였다. 이런 종교적 필요성 때문에 둥근 모양의 지구 위에 위치한 두 지역(예배자의 위치와 카바의 위치) 사이의 거리 측정을 위해 도표와 지도, 도구들이 생겨났다.

24) 원형의 구형도로 제작된 아라비아지도로는 모로코의 지리학자 알-이드리시에 의해 제작된 세계지도가 대표적이다. 알-이드리시는 1154년 시칠리아의 노르망 왕 로제르 2세(Roger II, 1095~1154)의 명을 받아 400킬로그램 상당의 은으로 만든 공 모양의 지구의를 제작하였는데, 표면에는 7개의 대륙이 새겨지고, 강과 호수, 주요 도시들과 무역로와 같은 상세한 정보까지 묘사했다. 여기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종교와 언어, 풍습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일람표가 곁들여졌는데, 일종의 지리해설서인 이 일람표는 《알키타브 알루자리*Al-Kitab al-Rujari*》라 불렸는데, 《로제르 왕의 서(書)》라고도 불린다. 알-이드리시의 지도는 기본적으로 프톨레마이오스 전통을 계승하여 9개의 위선(클리마타)과 11개의 경선을 기입했지만 프톨레마이오스가 사용한 비직선 투영법과 같은 개념은 아니고 오히려 중국의 방격과 유사하다. 7개의 지방을 구분하고 10도 간격의 위선으로 나누었지만 각 위선의 간격은 일정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으로 규정한 ‘지방’ 체계와 동쪽으로 확장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그의 개념을 이 지도의 기초로 삼았다는 점에서 볼 때 프톨레마이오스가 끼친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프톨레마이오스 지도와는 달리 인도양에 대해가 아니고 카스피 해도 만이 아남을 밝힌 것은 진전된 부분이다.

25) 중국의 천하도(天下圖)에는 조선과 일본이 빠져 있는 것이 상례이다. 화이도(華夷圖)와 우적도(禹跡圖)(1137년)에도 변방지역은 제외시키거나 기록한다 해도 간략하게 넣었고, 중국인의 세계관을 반영하여 중국만을 그렸다.

있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중국이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던 유럽과 아라비아-아프리카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최초의 세계지도라는 점에서 조선의 세계인식은 당시의 중국의 세계인식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도 적지 않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 - 이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지리적으로 드넓은 규모의 (외부)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조선왕조의 원대한 이상을 내부적으로 강조하려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공간의 크기는 곧 통치력 혹은 통치자의 능력과 비례하는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 또한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것이다.

결국 지도제작의 과정연구에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과업이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참고했다는 지도는 어떤 지도였느냐, 영향은 직접적인 것이었느냐 단지 간접적인 것이었느냐, 지도의 정확성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들을 ‘역사적’ 관점에서 ‘과학적/객관적’으로 밝혀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의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접근 방식은, 이찬의 언급대로 “(천하도는 한국인의 이상적인 세계관을 표현한 추상화된 지도인 데 대하여) 혼일강리도(《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세계에 관한 지리적인 지식을 과학적으로 (이텔릭체는 필자의 표시임) 수집 편집한 지도이다.”(이찬 1977, 58)라고 지도의 성격을 전제할 때에 한해서만 유용한 방식이 된다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필자의 관심은, 지도연구에서 이에 버금갈 만큼 중요한 물음이 하나 더 있는데, (알 수만 있다면) 참고한 지도들과 얼마만큼 같고 또 다를까, (만약 그랬다면) 그대로 넣(복사하)거나 뺀(수정한) 기준은 무엇이이었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점에 더 쏠려 있다. (여기서도 물론 우선적으로 ‘정보수집’ 과정을 명확히 밝히는 작업이 우선한다.) 다시 말해서 ‘지극히 넓’은 세계를 ‘줄여서’ 그리려면 ‘상세하게’ 만들기가 어려워 ‘소략’했다는데, 그 ‘정보처리’ 과정에서 ‘참조하여’ ‘자세히 교정’하고 ‘합쳐서’ 하나의 지도를 만들 때, 전체 지도의 지역별 ‘스케일’은 어떤 비율로 조정·배치한 것인지, 어떤 부분의 지형을 어떻게 상세하게 그리고 또 생략했는지, 국도나 지명을 표시할 때 무엇을 담고 무엇을 생략했는지, 궁극적으로는 왜 그렇게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물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당시 획득한 정보의 양과 정확성 정도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적은 정보 중에서 발췌하는 것과 풍부한 정보 중에서 다듬고 선택하는 것은 성격상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지도제작기술 또한 문제가 된다. 그러나 더불어 중요한 것은 정보의 ‘생략’, ‘유실’, ‘은폐’, ‘왜곡’ 역시 고려해야할 점이라는 사실이다. 관심사의 정도나 지도제작 목적

에 따라 필요한 부분은 넣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생략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그 판단의 기준이라는 게 무엇이었을까?)

어차피 참고했다고 밝힌 지도들은 현재까지 발견된바 없기 때문에 역사적·지리학·지도제작사적 연원(淵源)/유래(由來)나 그 관계(關係)를 규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물론 역사적 ‘화석의 고리’가 없다 하더라도 그걸 밝혀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연구자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만 기존의 여러 역사적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검토하되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제작의 정치-사회적 배경에서 ‘맥락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도제작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어떻게, 그리고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유추하고 해석하는 것이 (그나마 지도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총체적 실체에 접근하기에 유리한 방법은 아닐까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물론 방법론적으로 ‘원인에서부터 결과로’ 찾아 가야 할 것이나, 자료상의 한계로 ‘결과를 통해 원인을 추론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다.) “지도는 진실로 세계의 ‘과학적’ 이미지를 담을 수 있다.” 그러나 “지도의 콘텐츠는 지도를 제작하는 사회의 가치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지도의 콘텐츠는 권력의 취급/처리에 달려 있다.”(Harley 1989, 287, 289)라는 사실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기 때문이다.

IV. 결론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가져다준 지도학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 현존하는 ‘동양 최고(最古)의 세계지도’라는 점에서, 17세기 마테오리치의 《곤여만국전도》가 처음 소개될 때까지 세계에 대한 정보와 인식은 적어도 동북아 삼국에서는 ‘가장 넓은 지리적 시야와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조선인의 중국을 넘어 선 세계 이해와 ‘외부세계’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히 아라비아-아프리카지역에 대한 묘사는 - 적어도 유럽에서는 아프리카에 대한 독립적인 생각이 르네상스시대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Relano 2002, 1). - 동서양을 막론하고 매우 독특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지금까지 국내외의 여러 연구자들은 이 지도의 제작 배경과 그 과정에 관한 역

사적 연원(淵源)과 유래(由來)를 밝히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한 나머지 이 지도제작이 갖는 정치-사회적 맥락을 간과해 온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것이 아무리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둔 과학적인 지도라 하더라도 ‘상징으로서의 지도’와 ‘지도에 담긴 답론’은 필연적으로 정치-사회적 맥락 – 그런 의미에서 지도란 결코 가치중립적인 생산물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사회적 생산물이며, 드러내든지 숨기든지 간에 지도에 담긴 수많은 상징과 이야기들 역시 정치-사회적 의도와 의미를 가진다. – 을 갖게 마련이다. 그래서 지도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즉 지도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제작자[publisher]=수집가[observer/surveyor]+ 편집자[designer/editor/printer]),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사용자[librarian/user])하는 물음과 마찬가지로 지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해석자[interpreter]) – 해석은 일차적으로 지도제작과정에서 이미 반영된다. 따라서 지도해석은 일종의 메타과학(meta-science)이 된다. – 에 관한 통합적(interdisciplinary)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지도해석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하나의 국가적인 프로젝트로서 제작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여 년 전 조선개국(1392년) 초기 왕실에서 사신을 외국에 보내 지도자료를 수집케 하고 소략·편집하여 – 여기서 다시 ‘정보수집’과 ‘정보처리’는 엄격히 구별된다. – 세계지도를 제작한 사실은 당시 국내외의 정치적 맥락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음을 눈치 채게 해 준다. 태종은 정국이 불안정하던 개국 초기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새롭게 체제를 정비하여 사실상 개국의 기틀을 마련한 창업군주였다. 학문에 두루 능통했던 그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것은 통치자로서의 자신의 원대한 이상과 권력의 정당성을 정치적·이념적·역사적으로 대내외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으리라(Robinson 2007, 182). 이것이 바로 ‘거시적인’ 지도제작의 정치-사회적 맥락이었다.

발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세계지도제작은, 밖으로는 드넓은 천하세계를 나타내 보여 줌으로써 왕조의 원대한 정치적 이상을 견고히/구체화하고, 안으로는 중국을 천하세계의 중심에 둠으로써 주자학이라는 건국이념을 분명하게 천명함으로써 권력의 정당성과 더불어 중국과의 안정적인 외교적 관계를 획득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에 세계지도는 매우 적절한 ‘정치-사회적’ 도구였던 것이다(Harley 1989, 300).²⁶⁾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자들이 역사방법론을 통해 어느 정도 밝혀 왔듯이 이 지도가 중국을 통해 얻은 몽골제국의 영향을 받은 이슬람계통의 지도의 영향 하에 제작되었다는 것은 ‘거시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적어도 당시 지도제작자들이 외부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지리적 정보나 ‘구체적인’ 지식을 토대로 하여 지도를 제작했다고 보기에는 그 증거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정보처리과정에서 지도콘텐츠를 ‘생략,’ ‘은폐,’ ‘왜곡’하고 있음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하면서도 또한 달리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외부세계에 대해 개방적이면서도 수준 높은 조선 초기의 세계인식과 세계지도제작 전통은 그 후 약 200여 년간 세계지도제작사에서 이렇다 할 발전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 물론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여러 사본제작이 적어도 150~200여 년간에 걸쳐 드문드문이나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지도제작전통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통/형태의 세계지도제작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말한다. – 은 안타깝다.

15~6세기 주자학(朱子學)을 근본 바탕으로 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조선사회 문화에 두루 퍼지면서 새로 제작되는 (세계)지도들 – 정척(鄭陟) · 양성지(梁誠之)의 《동국지도(東國地圖)》(1463년, 세조 9년), 최근 병인양요(1866년) 때 약탈되어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BNF)에 보관된 외규장각 문서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천하여지도》(17세기 중반), 고산자(古山子) 김정호(金正浩)의 《청구도(靑邱圖)》(1834년, 순조 34년)와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1861년) 등 – 에는 주로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만을 표시했다(오상학 2001; 이찬 1977, 66).²⁷⁾ 다만 17~8세기 서양문물과 지식·정보가 명(明)과 청(淸) 나라를 통해 전래되

26) 필자는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를 포함하여 15세기의 관찬 세계지도 내지 동아시아지도는 일차적으로 지리 파악에 목적이 있었으므로 그 자체에 성리학적 이념성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배우성의 주장 – 배우성, “고지도들을 통해 본 조선시대의 세계 인식,” *震檀學報* 83(1997), 58쪽. – 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왕실이 후원하는 지도제작과정에서 당대의 지배층의 세계관 혹은 지배 이데올로기 – 그것이 실용적인 목적에 바탕을 둔 그 무엇이든지 간에 – 가 배제되리란 어렵기 때문이다.

27)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이후에 제작된 세계지도들 –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소장), 《화동고지도》(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일본의 소심사 인양원 소장),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일본 궁내청 소장), 《대명국지도》(일본 水戸 彰考館 소장) 등 – 에는 지역적 범위가 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일대로 축소된 형태를 띤다. 이 지도들에서 아라비아, 아프리카, 유럽 대륙이 사라진 까닭은 원(元)이 사라지고 명(明)이 중원을 장악하면서 영토가 대폭 축소

면서 그 후 조선에서 제작된 세계지도 - 1775년에 제작된 《여지전도(輿地全圖)》를 포함하여 - 에서는 일본, 중국, 아프리카를 크게 그려 넣고, 유럽의 잉글랜드 및 스칸디나비아와 인도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개척한 ‘지리적 시야의 확대’라는 새로운 인식의 지평이 공감대를 얻기 시작했으며, ‘서구식 세계지도가 보여주는’ 천하를 보다 ‘과학적·객관적으로’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음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Ledyard 1994, 249; 배우성 1997, 52).

※ 주제어 :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혼일강리도, 조선시대 고지도, 이슬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제국 때 이루어졌던 광범위한 문화적 교류는 명과 주변의 일부 조공국에 한정되어 버렸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15세기 이후 중국에서 제작된 대표적인 지도인 《황명일통지리지도(皇明一統地理之圖)》(1536년)나 《고금형승지도(古今形勝之圖)》(1555년) 등에서도 유럽, 아프리카 지역은 찾아 볼 수 없게 된다. 조선의 경우 주자성리학이 사회 운영의 원리로 체계적으로 정립되게 되면서 이에 따라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되는데, 문화적 중화관인 중화=명, 소중화=조선이라는 양자 군신관계에 의한 의식이 반영됨으로써 교류가 거의 없던 지역은 중화의 주변이자 오랑캐로 여김으로써 큰 의미를 지닐 수 없게 되는데 따른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권정(2009). “古地圖に顯れる朝鮮初の自國認識 -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を通じて-,” *일본문화학보* 41, 181~196.
- 국립지리원(2000). *한국의 지도 - 과거, 현재, 미래*, 서울: 대한지리학회.
- 김인덕 외 지음(2005). 과학문화, 서울: 솔출판사.
- 김호동(2010). “몽골제국과 「대원일통지」의 편찬,” *포스코 아시아 포럼 Proceedings*, 1-18.
- 배우성(1997). “고지도를 통해 본 조선시대의 세계 인식,” *진단학보* 83, 43-83.
- (2006). “조선후기의 이역(異域)인식,” *조선시대사학보* 36, 145~177.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편(2006). *명품 도록 - 국보·보물 / 의례 / 고지도 / 서화*, 서울: 서울대학교.
- 서정철(1996). *서양고지도와 한국*, 서울: 대원사.
- 신병주(2007). *규장각에서 찾은 조선의 명품들*, 서울: 책과함께.
- 영남대학교 박물관 소장(1998). *한국의 옛 지도*, 대구: 영남대학교 박물관.
- 오상학(2001). *조선시대의 세계지도와 세계 인식*, 서울: 서울대학교 문학박사학위논문.
- (2003). “조선시대의 일본지도와 일본 인식,” *대한지리학회지* 38-1, 3-47.
- (2011). *조선시대의 세계지도와 세계 인식*, 서울: 창비.
- 이찬(1977). “韓國의 古世界地圖 - 天下圖와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에 대하여,” *韓國學報* 2-1, 47~66.
- (1991). *韓國의 古地圖*, 범우사.
- 이희수(1991). *한·이슬람 교류사*, 문덕사.
- 전종한 외(2005). *인문지리학의 시선*, 서울: 논형.
- 최창모(2009). “중세이슬람 고지도(古地圖)의 발전과정과 세계이해,”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9-3, 183-208.
- 한영우 외(1999). *우리 옛지도와 그 아름다움*, 서울: 효형출판.

多元視野で解明する至宝(2009). 「混一疆理歷代國都之図」: 龍谷大学創立370周年記念事業 国際シンポジウム・展示, 京都: 龍谷大学人間・科学・宗教総合研究センター.

高橋正(Takahashi Tadashi)(1963). “東漸せる中世イステム世界図—主として混一疆理歷代國都之図について,” 龍谷大學論集 第374號, 77-95. = Takahashi Tadashi, “Tozen seru chusei isuramu seikaizu (Eastward diffusion of Islamic world maps in the medieval era),” *Ryukoku Daigaku Ronshu* 374, 77-95.;

----- (1966). “『混一疆理歷代國都之図』再考,” 龍谷史壇 (小笠原、宮崎兩博士華甲記念特集) 56-57, 204-215.

----- (1973). “『混一疆理歷代國都之図』續考,” 龍谷大學論集 第400・401號, 586-600.

宮紀子(Noriko, Miya)(2005). *Kon'itsu Kyōri Rekidai Kokuto no Zu he no michi* 「混一疆理歷代國都之図」への道.

----- (2006). *Mongoru jidai no shuppan bunka*, モンゴル時代の出版文化, 名古屋大學出版會. 487-651.

----- (2007; 2010). *モンゴル帝国が生んだ世界図*, 東京: 日本經濟新聞出版社, 2007.; 조선이 그린 세계지도: 몽골 제국의 유산과 동아시아, 김유명 옮김, 소와당.

朱思本(1969). *廣輿圖: 2卷* [朱思本原圖; 羅洪先增纂; 胡松刊補], 影印本, 台北: 學海出版社.

青山定雄(Aoyama Sadao) 編(1965). *讀史方輿紀要索引/中国歷代地名要覽* (Dokushi hōyō kiyō sakuin Chūgoku rekidai chimei yōran), 東京: 大安(Tōkyō: Daian).

杉山正明(Masaaki, Sugiyama)(2007). *Tōzai no sekaizu ga kataru jinrui saisho no daichihei* 東西の世界図が語る人類最初の大地平, 大地の肖像, 54-83.

Ager, John(1977). "Maps and Propaganda," *Bullitin* 11, 1-14.

- Andrews, John Harwood(1994). *Meaning, knowledge and power in the map philosophy of J.B. Harley*, Dublin: Department of Geography, Trinity College.
- Blakemore, M.J. and Harley, J.B(1980). *Concepts in the History of Cartography: A Review and Perspective*, Cartographica 17-4, Monograph 26, Ont.: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Bodleian Library(2002). *Medieval Islamic Views of the Cosmos: The Book of Curiosities*, 2002. 온라인 자료 <http://www.ouls.ox.ac.uk/bodley>
- Clark, John O.E.(2005, 2007). *Remarkable Maps: 100 Examples of How Cartography Defined*, Great Britain: Conway, 김성은 옮김, 《지도 박물관: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지도 100가지》,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 Cosgrove, Denis E. & Daniels Stephen(1988). *The Iconography of Landscape : Essays on the Symbolic Representation, Design and use of past environmen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dson, E. & Savage-Smith, E.(2004, 2006). *Medieval Views of the Cosmo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이정아 옮김, 《중세, 하늘을 디자인하다 - 옛 지도에 담긴 중세인의 우주관》, 서울: 이콘아침.
- Flecker, Michael(2001). "A Ninth-Century AD Arab or Indian Shipwreck in Indonesia: First Evidence for Direct Trade with China," *World Archaeology* 32-3, 335-354.
- Huff, T.E.(1993, 2nd ed. 2003). *The Rise of Early Modern Science: Islam, China, and the We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ng, Liu(2007). "The Chinese Inventor of Bi-Hemispherical world Map," *e-Perimtron* 2-3, 185-193.
- Gladney, D.C.(2003). "Islam in China: Accommodation or Separatism?" *The China Quarterly* 174, 451-467.

- Goodrich L.C.(1943). *A Short History of the Chinese People*, New York: Harper & Brothers.
- Guangqi, Sun(1992). "Zheng He's Expeditions to the Western Ocean and His Navigation Technology," *Journal of Navigation* 45-3, 329-343.
- Harley J.B(2001). *The New Nature of Maps: Essays in the History of Cartography*, Baltimore, Md.;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1997), "Power and Legitimation in the English Geographical Atlases of the Eighteenth Century," in *Images of the World: The Atlas through History*, John A. Wolter and Ronald E. Grim, ed.,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1997, Pp.161-204.
- (1989). "Maps, Knowledge, and Power," in *The Iconography of Landscape*, D. Cosgrove and S. Daniels, ed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su, Mei-Ling(1988). "Chinese Marine Cartography: Sea Charts of Pre-Modern China," *Imago Mundi* 40, 96-112.
- (1997). "An Inquiry into Early Chinese Atlases through the Ming' Dynasty," in *Images of the World: The Atlas through History*, ed. by John A. Wolter and Ronald E. Grim,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31-50.
- Hulbert, H.B.(1904). "An Ancient Map of the World," *Bulletin of the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36, 600-605.
- Israeli, Raphael(1977). "Muslims in China: The Incompatibility between Islam and the Chinese Order," *T'oung Pao* 63-4/5, 296-323.
- (1978). "Established Islam and Marginal Islam in China from Eclecticism to Syncretism," *Journal of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Orient* 21-1, 99-109.
- Jackson, Peter(2005). *The Mongols and the West*, Harlow:

Pearson/Longman.

Khan, M.(1963). *Islam in China*, Delhi: National Academy.

Kuei-sheng, Chang(1970). "Africa and the Indian Ocean in Chinese Maps of the Fourteenth and Fifteenth Centuries," *Imago Mundi* 24-1, 21-30.

Ledyard, Gari(1994). "Cartography in Korea," in *The History of Cartography*, Vol.II, Book 2, Cartography in the Traditional East and Southeast Asian Societies, ed. by J.B. Harley and David Woodwar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35-345.

----- (1991). "The Kangnido: A Korean World Map, 1402," in *Circa 1492: Art in the Age of Exploration*, ed., Jay A. Levenson, Yale University Press, 328-332.

Leslie, D.D.(1986). *Islam in Traditional China: A Short History to 1800*, Canberra: Canberra College of Advanced education.

Minorsky, V.(1957). "Mongol Place-Names in Mukri Kurdistan,"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19-1, 58-81.

Mitchell, W.J.T., ed.(1980). *The Language of Imag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aramustafa, Ahmet T.(1991). "Introduction to Islamic Maps," in *The History of Cartography, Vol. II Book 1 - Cartography in the Traditional Islamic and South Asian Societies*, eds., J.B. Harley and David Woodwar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Namba, Matsutarō; Muroga, Nobuo; Unno, Kazutaka(1973). *Old Maps in Japan*, Osaka: Sōgensha.

Needham, J.(1959). *Science and Civilization in China*, vol.3, Cambridge: University Press, 8554-8556.

Quam, L.O.(1943). "The Use of Maps in Propaganda," *Journal of Geography* 42, 21-32.

- Relano, F.(2002). *Shaping of Africa: cosmographic Discourse and cartographic Science in Late Medieval and Early Modern Europe*, Aldrshot: Ashgate.
- Robinson, Kenneth R.(2000). "Centering the King of Chosŏn: Aspects of Korean Maritime Diplomacy, 1392-1592,"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9-1, 109-125.
- (2007). "Chosŏn Korea in the Rykoku *Kangnido*: Dating the Oldest Extant Korean Map of the World (15th Century)," *Imago Mundi* 59-2, 177-192.
- (2008). "Yi Hoe and His Korean Ancestors in T'aean Yi Genealogies," *Journal of Korean Studies* 21-2, 221-250.
- Ross, Val(2003; 2007). *The Road to There: Mapmakers and their Stories*, Toronto: Tundra Books.; 홍영분 역, *지도를 만든 사람들: 미지의 세계로 가는 길을 그리다*, 아침이슬.
- Rubin, Rehav(1991). "Original Maps and their Copies: Carto-Genealogy of the Early Printed Maps of Jerusalem," *Eretz Israel* 22, 166-183. (in Hebrew)
- Rubin, Rehav(1999). *Image and Reality: Jerusalem in Maps and Views*, Jerusalem: The Hebrew University Magnes Press.
- Sack, R.(1980). *Conceptions of Space in Social Thought: A Geographic Perspective*, London: Macmillan.
- Sang-woon Jeon(1974).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Traditional Instruments and Techniques*, Cambridge, Mass; London: MIT Press.
- Smith, Richard J.(1996). *Chinese Maps: Images of "All Under Heaven"*, Hong Ko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puler, Bertold(1972). *Geschichte der Mongolen, nach östlichen und europäischen Zeugnissen des 13. und 14. Jahrhunderts*. English

- trans. by Helga and Drummond, Stuart, *History of the Mongols: based on eastern and western accounts of the thirteenth and fourteenth centuries*, Routledge and K. Paul.
- Thomas, L.B(1949). "Maps as Instruments of Propaganda," *Surveying and Mapping* 9, 75-81.
- Tibbetts, G.R.(1979). *A Study of the Arabic Texts Containing Material on South-East Asia*, Oriental Translation Fund, New Series Vol.XLIV, Leiden: E.J. Brill.
- Trudinger, Mark(2006). "Maps of Violence, Maps of Hope: Using Place and Maps to Explore Identity, Gender, and Viol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Narrative Therapy & Community Work* 3, 11-42.
- Unno, Kazutaka(1958). "On the Anonymous Map of China Owned by the Tenri Central Library," *Osaka Gakugei Daigaku Kiyo* 6, 60-67.
- Wolter, John Amadeus and Grimes, Ronald E, ed.(1997). *Images of the World: The Atlas through History*,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 Woo-sung, Bae(2008). "Joseon Maps and East Asia," *Korea Journal* Spring, 46-79.



최창모

소 속
이메일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문화콘텐츠학과
ccmo55@konkuk.ac.kr

논문접수일	2012년 12월 15일
심사완료일	2013년 01월 27일
게재확정일	2013년 02월 05일